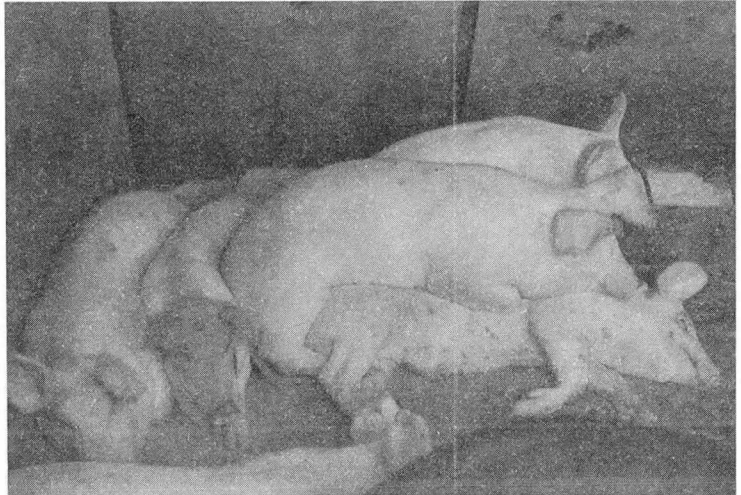


겨울철에 피해가 큰

자돈설사 예방법

특집
겨울철
돼지 생산성 향상
관리 포인트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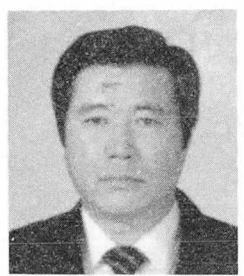
10월 초순인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하니 분만돈사나 자돈사는 저녁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할 때다. 또 보온이 중요하다고 너무 갑자기 돈사를 밀폐할 때에는 호흡기 질병(위축성 비염, 파스튜렐라성 폐렴, 홍막폐렴, 유행성폐렴)등에 감염되어 피해를 보기가 쉽다. 그래서 환절기의 너무 급격한 온도변화는 자돈의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UR이다, 냉장돈육 수입개방이다 하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

로 뒤숭숭한 양돈업계에 작년 겨울에는 불청객인 자돈 설사병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우리 양돈인들이 보았다.

작년 11월경부터 경상남도 지방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돼지의 전염성 설사병이 그 지역에서만 약 40,000두의 자돈이 폐사했다는 풍문이 돌더니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필자가 근무하는 고양, 파주 일원에도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장 30여곳중 약 10여개 농장에서 300복 이상의 피해를 주



최 찬 영
(신진가축병원장)

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완연해진 4월말경에야 슬금슬금 물러갔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돈의 피해로 인해 올 여름 돼지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많은 양돈인들이 농장을 건너치우고 전업을 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다른 축종처럼 양돈업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양돈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최적 경영규모의 확보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농장운영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웃 농장과 기술의 교류는 물론 경영정보도 교환하여 우리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옛날처럼 원가절감한다고 약품비를 줄이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마저도 소홀히 하고 농장에 질병이 들어와도 쉬쉬하며 감추어서는 절대 안된다. 돼지의 질병에는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숨기다가는 우리 농장뿐 아니라 이웃 농장, 아니 전국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발병 즉시 인근의 수의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치료하여야 한다.

현대의 과학적 양돈업에서 예방약품과 첨가제 등은 비용만 들어가고 없어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꼭 필요한 원자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 자돈에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자돈에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은 전염성 위장염(T.G.E),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대장균성 설사, 돼지 유행성 설사(PED), 원충성 설사(콕시든통증), 기생충성 설사, 클로스트리디움 장염 등이 있고 기타 식이성 설사, 철 결핍성 설사, 오제스키병, 돈 콜레라 감염시에도 설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중 식이성 설사는 포유자돈의 경우 모돈의 유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므로 모돈에게 유질개선제를 사료에 첨가 급여하면 되고 이유자돈의 경우는 과식을 방지하며 사료 변경시 사료조절을 잘 해주고 이유자돈 사료에 소화제와 약간의 항생제를 첨가해 주면 예방할 수 있다.

철 결핍성 설사는 생후 3일령과 10일령에 철분주사를 놓으

“

TGE, Rota 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콜레라, 대장균증 등의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TGE — 로타 혼합백신이 시판되고 있으니 모든 분만 6주전, 3주전 2회 예방접종을 연중 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자돈에도 복강내 예방주사가 가능한 백신이 판매되고 있으니 이용하기 바란다.

”

므로 예방할 수 있으며 오제스키병에 의한 설사는 현재 예방약이 없으므로 소독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돈 콜레라에 의한 설사는 양돈방역의 기본이므로 모돈과 자돈에 예방접종하면 된다. 원충성 설사(콕시들통증)는 10일령 전후의 포유자돈과 톱밥발효돈사로 옮겨 놓은 이유자돈에서 간혹 발생하나 콕시스토프와 같은 항 콕시들통제 약품을 투여하여 치료할 수 있고 기생충성 설사는 환경이 불량한 돈사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철저한 구충제 투여로 큰 피해없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요즘 톱밥발효돈사에서 기생충란의 오염 등으로 자못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나 1차, 2차의 철저한 구충(특히 장결절충) 후에 이유자돈을 톱밥돈사에 입식시켜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다수의 농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사병이 대장균성 설사이다. 생후 1주일 경에 회백색의 설사를 하며 2주령(15일 전후)에서도 빈발하고 또 어떤 농장에서는 3~4주령분만 전후에 설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농장도 있다. 분만사의 소독과 환경위생에 조금



만 게을리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다. 모돈과 자돈에 대장균 백신을 접종하면 80~90%는 예방이 가능하고 세심한 사양관리와 조기 발견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주사하고 경구투여 약제도 병행하면 치료할 수 있다.

3.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질병의 특징

어린 포유자돈의 경우 발견이 늦거나 치료를 게을리하면 3~4일 사이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회복이 되어도 위축돈이 되기 쉬우며 사양시험에 의

하면 1일 설사에 비육돈 출하일령이 약 1주일 늦어진다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뭐라해도 자돈설사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첫째 전염성 위장염(TGE), 둘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Rota), 셋째 최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 유행성설사(PED)이다.

이들 질병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4. 겨울철의 돼지 설사병 예방대책

이들 세가지 주요 바이러스

<표1>자돈설사를 유발하는 주요 질병

병명	특징	증상	대책
T.GE (전염성 위장염)	(1)1주일 이내의 신생자돈에서 폐사율 높음 (90~100%) (2)계절적 유행(동절기 빈발) (3)1일령부터 성돈, 비육돈도 감염 (4)잠복기 48~72시간 발생이 폭발적 (5)전염율 100%	(1)수양성 악취나는 황색설사 (2)소장막이 얇아져 있다. (3)현저한 유증구토증상이 많음 (4)모든에도 설사와 구토가 많음 (5)상재성 TGE는 임상증상이 경미	모돈·자돈에 백신 접종(TGE 백신 or TGE-Rota 혼합백신)
Rota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1일~이유후까지 다발 (2)포유돈의 구토증상이 적고 사망률 낮음 (3)잠복기 2~5일 발생은 폭발적이나 때로 동별로 시간차 발생 (4)전염율 50~80%	(1)수양성 점액 많고 악취 적은 설사 (2)모돈의 설사와 구토가 드물다. (3)장에 액상소화물과 다량한 유즙이 들어있음	모돈, 자돈에 백신 접종(TGE-Rota백신)
PED (돼지 유행성 설사)	(1)1주일내 자돈 폐사율50~90%, 비육돈군의 폐사율 1~3% (2)질병 전파속도가 느리고 발병증상 TGE와 유사 (3)모든 일령의 돼지 감염되나 1주일 이상자돈은 1주일정도 지나면 회복 (4)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변을 통해 전염 (5)전염율 100%	(1)구토후에 수양성 설사 (2)성돈은 준 임상형 감염을 하거나 침울, 식욕결핍, 구토 등의 증상 (3)비육돈은 설사 1주후 회복, 소장이 황색 액체로 충만	예방약 없음. 현재 개발중 소독및 방역철저

이 중요하며 돈사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반드시 신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주위에 설사병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우리농장에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수의사와 상의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예장점중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사를 하는 돼지의 분변이나 폐사된 자돈의 소장 내용물을 이용하여 전 돈군을 인공 감염시켜 질병의 경과를 짧게 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에는 모든 양돈장에서 질병의 피해가 없는 겨울이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수의사)
- 건국대학교 농축개발대학원 졸업 (수의학 석사)
- 현재 신진가축약품 경영

성 설사병은 발병하면 피해가 크며 빠른 치료 대책이 없으므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TGE, Rota 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콜레라, 대장균증 등의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TGE-로타 혼합백신이 시판되

고 있으니 모든 분만 6주전, 3주전 2회 예방접종을 연중 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자돈에도 복강내 예방주사가 가능한 백신이 판매되고 있으니 이용하기 바람 PED(돼지 유행성 설사)는 현재 백신이 개발중이니 철저한 소독과 외부와의 차단